

충성대신문

正論直筆로 忠誠臺의 價値創出을 先導한다.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제 203호

- 02 학교소식 창설 제55주년 기념행사
- 04 학교소식 2023년 충성제
- 07 생도광장 생도대 대나무숲
- 11 오피니언 사회 저명인사 킬링
- 13 동문소식 동문(同門)의 소리
- 16 발전기금 발전재단 소식



창간 1974년 5월 20일 / 발행인 배현국 / 편집인 임문택 / 주간 최재호 / 편집담당 길진규 / 편집국장장생도 오찬을 / 충성대신문사 (054) 330-3605 www.kaay.mil.kr

203호 사진제공 및 편집: 병장 설영환, 상병 윤춘기, 일병 임은혁, 오세준, 채호준

육군3사관학교 창설 제55주년 기념행사

생도 가족 및 친지, 동문 등 함께하며 의미 되새겨, 38기(20주년) 임관 기념행사 병행



지난 10월 13일 충성연병장에서 학교 창설 제55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학교와 3사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사관생도를 비롯한 생도 가족 및 친지, 동문, 재향군인회원 등 약 1,000여 명이 함께 참석하여 창설 55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행사는 성화 점화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축전 낭독(국방부장관 참모총장) ▶포상 수여(11명) ▶학교장 기념사 ▶위문금 및 발전기금 전달 ▶분열 순으로

진행되었다. 학교장(소장 배현국)은 축사를 통해 “충성대인들은 지난 55년간 ‘조국, 명예 충용’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며, ‘위군헌신 군인본분’의 소임을 다해왔다”라며, “그동안 이어온 학교의 전통과 업적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며, 앞으로도 도약적 변혁을 주도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주무관 길진규

우수생도 모집 전략 논하다

제25회 충성대 학술세미나 개최, 외부 전문가·교수·생도 등 열띤 의견 나누

학교는 지난 9월 15일, ‘육군3사관학교의 인재상 정립과 우수생도 모집 전략’을 주제로 제25회 충성대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군 내 인력 획득 관련 관계자와 외부 대학교 교수진, 생도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총 4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위원이자 학교 특임교수인 양욱 연구위원이 ‘미래 육군의 장교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한국국방연구원 이동윤 선임 연구위원이 토론자로서 논평을

진행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용후 피와이에 이치 대표에 의해 ‘육군3사관학교의 인재상’ 발표가 이어졌다. 생도들에게 관점과 생각의 폭을 넓힘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 가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평택대학교 남정아 교수에 의하여 인재상에 대해 추가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더불어 세 번째 세션에서는 박정환 중령(사회학처장, 경제경영학과 교수)이 우수생도 모집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 네 번째 세션에서는 심리학과 사관생도 발표팀에 의해 ‘생도가 생각하는 우수생도 모집전략’에 대해 함께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주무관 길진규



제25회 충성대 학술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주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영천시민과 함께 안보·화합의 축제

생도 및 장병 500여 명 행사참가 및 관람 체육대회 및 부대공연, 물자 및 장비전시 등 풍성한 행사 지원



체육대회(축구)

학교는 지난 10월 10일, 영천시에서 개최한 ‘2023 밀리터리 축제’를 적극 지원 및 동참해 지역사회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이번 축제는 생도 및 장병 500여 명이 행사에 참가, 관람을 실시했다. 축제는 체육대회, 부대공연, 물자 및 장비전시, 우

정의 무대(부대별 장기자랑 등), 장병 및 가족 영천관광투어로 구성됐다.

체육대회는 축구, 줄다리기, 계주 부문에 생도와 장병이 참가하였으며, 부대공연으로 군악대는 소조밴드 및 개막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띄웠다. 생도들은 밴드 및 치어리딩 공연으로 지역주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밖에도 관내 5개 부대가 물자 및 장비전시, 태권도 및 의장대 시범, 육군 항공 축하비행 등 이색적인 볼거리를 마련해 축제에 동참했다. 장병들의 적극적인 참가는 지역사회의 군에 대한 친근함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안보의식을 함양하고 민·관·군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화합 기회를 만들었다. 소령 한상미



부대별 장기자랑(밴드부 공연)

“국민 생명 살리기 위해...” 미담 봇물



혈액암 환자를 위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60기 허강현 생도



소아암 환자를 위해 모발을 기부한 김화경 소령(정비근무대장)

허강현 생도, 국민 생명 살리기 위해 주저 없이 조혈모세포 기증

김화경 소령, 소아암 환자 위해 3년 동안 기른 모발 기부

보급근무대 장병, 수혈 필요한 환우 위해 헌혈증 기부

학교 사관생도 및 장병들의 선행이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60기 허강현 생도의 조혈모세포 기증 소식과 함께, 김화경 소령(정비근무대장)의 모발 기부, 보급근무대 장병의 헌혈증 기부 소식이 연이어졌다. 먼저 허강현 생도는 최근 생면부지의 혈액암 환자를 위해 망설임 없이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허 생도는 2020년 육군훈련소 조교로 복무 시절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알게 됐고, 기증 등록을 했다. 그리고 최근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부터 유전자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망설임 없이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허 생도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로서 국민의 생명

을 살릴 수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해 기증절차부터 건강관리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학교와 훈육관님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화경 소령은 셋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작은 부분이라도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모발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고, 최근 3년 동안 기른 모발을 ‘어머니(어린 암 환자들을 위한 머리 카락 나눔) 운동본부’에 기부했다. 또한, 김 소령의 주도로 근무지원단 장병들은 소아암·백혈병 등 수혈이 필요한 환우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혈증을 모아 ‘대한민국사회공헌재단’에 기증했다.

김 소령은 “나의 작은 기부가 소아암 환자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장병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해줘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하는 군의 일원으로서 기부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모발 기부는 염색이나 파마를 하더라도 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며 홍보를 당부했다.

소령 한상미

공부의 신 강성태 명예 홍보대사 위촉



명예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학교장(소장 배현국)이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에게 위촉패를 전달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 강 대표 “장교의 꿈을 가진 학생들 도울 것”

지난 10월 18일, 학교장(소장 배현국)과 학교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부의 신’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강성태 대표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를 졸업 후 교육봉사 동아리 활동을 시작으로 방송과 강연을 통해 공부의 신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공신닷컴 대표로서 기업인이자, 약 100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다.

강 대표는 “육군3사관학교 홍보대사가 되어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육군3사관학교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많은 청년들이 장교의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명예 홍보대사 위촉 소감을 밝혔다. 강 대표는 명예 홍보대사 위촉식에 이어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3사교와의 인연, 홍보대사로서의 활동 방향, 생도와의 질의응답 등 다양한 소재로 좌담회 시간을 가졌다.

소령 한상미

“충성! 사관캠프 입소를 명받았습니다.”

대구·경북지역 청소년 대상,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사관캠프 개최



충성대 사관캠프에 입소한 고등학생들이 체력 훈련을 체험하고 있다.

2019년 코로나 이후 잠정 중단되었던 ‘충성대 사관캠프’가 4년 만에 돌아왔다. 지난 9월 22일(23-1기, 57명)과 10월 20일(23-2기, 111명) 2차에 걸쳐 대구·경북지역 10개 학교 학생 168명을 대상으로 ‘충성대 사관캠프’를 열었다.

‘충성대 사관캠프’는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2012년부터 경상북도와 협약 하에 추진하고 있는 인재육성 사업이다.

이번 캠프에 참석한 학생들은 입소식과 안보 교육, 생도 생활관 견학, 체력 훈련, 군악연주회 관람, 충성의식 참관 등 생도 생활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였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최우용 학생(19, 영주 한국국제조리고 3학년)은 “장교가 되기 위한 사관생도들의 노력과 인내심이 존경스럽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사관생도의 생활을 체험하면서 저를 비롯한 친구들이 각자의 꿈을 향해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무관 길진규

사관생도
우리들의 이야기

생도의 멋과 낭만

2023 충성제



“개교 55주년을 맞아 열정과 낭만,
그리고 화합을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2023년 충성제가 열렸다.
‘열정’, ‘낭만’, ‘화합’의 테마로 나누어 진행된
충성제는 체육대회, KAAY 강철전사 경연대회,
전시회/체험부스, 충성대의 밤,
국군방송 위문열차, 군악연주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주무관 길진규

1
일차 **열정**
사관생도 체육대회
생도의 밤





2
일차 **낭만**
KAAY강철전사경연대회
전시회/체험부스
국군방송위문열차



3
일차 **화합**
학교 창설기념식
군악연주회

국방부장관배 드론봇 경연대회 우수상 수상



▲ 2023 국방부장관배 드론봇 경연대회 '드론 축구' 우수상 수상 기념사진

지난 10월 8일과 9일,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계룡군(軍)문화축제와 연계한 '2023 국방부장관배 드론봇 경연대회'가 계룡대 비상활주로 인근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국방무인체계 활용 붐 조성과 드론 및 로봇 응용 분야 기술 발전 여건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올해는 신설된 1부 '국방드론봇 챌린지'와 기존 경연대회 종목인 2부 '국방드론봇 리그'로 나뉘어 펼쳐졌다

사관생도들은 기존 경연대회 종목인 '국방드론봇 리그'에

참여하였으며, '드론 축구', '드론 레이싱', '국방로봇 경진대회', '팝드론배틀' 종목 중 작년에 이어 '드론 축구' 종목 사관생도부에 참가했다

* 드론 축구 : 5인제 팀 경기로 각 3분씩 3세트 동안 공격과 수비를 나눠 상대편 드론 게이트 통과한 횟수로 점수를 획득하는 종목

59기 합재규 생도 등 6명(59기 나다훈, 류제범, 60기 이정

술, 유인서, 전상훈)으로 구성된 생도 RED팀은 체력단련 시간, 문화체육활동 시간 등을 틈틈이 활용하여 개인기 및 팀 전술 연습을 하며 실력을 연마했다. 그 결과, 사관생도부 우수상(2등, 충청남도지사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59기 합재규 생도는 "모두의 노력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대회 참가를 지원해준 학교와 지도 간부님, 교관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무관 길진규

사관생도 영어 스피치 경연대회 수상

오상석 생도, 한미 ARMY with ME 전국민 영어 스피치 대회 최우수상
권서현 생도, 한미 한국어·영어 말하기 경연대회 영어부문 우수상



▲ 한미 ARMY with ME 전국민 영어 스피치 대회 최우수상 59기 오상석 생도(오른쪽)

사관생도들이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 및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영어 스피치 경연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학교 이름을 빛냈다. 주인공은 영어학과 59기 오상석, 권서현 생도다.

먼저 9월 23일에 진행된 영어 스피치 대회는 육군이 "함께한 70년, 더 강한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기획한 대국민 참여 페스티벌 '한미 아미 윗미(Army with me)'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오상석 생도는 '내

가 생각하는 한미동맹 70년 성과를 주제로 발표하여 최우수상(1등,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오 생도는 "카투사시절, 장교의 꿈을 꾸게 해준 미군 동기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군인으로서 더욱 성장해 한미동맹에 기여할 수 있는 장교가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9월 26일에 실시된 제23회 한국어·영어 말하기 경연대회는 한미 장병들이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1999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부대별로 열린 예



▲ 한국어·영어 말하기 경연대회 영어부문 우수상 59기 권서현 생도(오른쪽)

심에 80명이 지원하여 이 가운데 선발된 19명(미군 8명·한국군 8명·생도 3명)이 무대에 올랐다. 이날 권서현 생도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성과'를 주제로 발표하여 우수상(3등, 미8군시령관상)을 수상했다.

권 생도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대회에 참가하고 수상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아낌없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신 영어학과 동기들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주무관 길진규

생도대 나무 숲

이 글은 생도들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권위주의

생도대에는 생도여단, 동기회, 양성평등 위원회, 생도문화개선위원회, 명예위원회 5개의 조직, 5부회가 존재한다 5부회에 소속되는 순간 5부회가 속하는 중대로 가서 자신의 직책에 맞는 과업을 수행한다. 이들은 기존의 중대를 떠나 새로운 중대에서 생활을 하게 되며 그 중대의 문화에 익숙해져 갈 때쯤 직책이 끝나 원래 중대로 돌아오게 된다

이들 중 대다수는 자신들의 원래 중대 문화를 다시 익혀가지만 간혹 본인이야기 피견 중대에 있다는 착각 전 직책에 빠져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밀어붙이며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것은 아직도 그 직책이 주는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권위주의 가 아닐까 싶다

겸손

우리 생도들은 항상 겸손한 모습을 가진 채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정진하여야 한다. 하지만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다가오며 점점 생도로서의 본분을 잊고 지만심과 허영심에 빠져 주변 동기들에게 거만한 모습을 보이고 타인 앞에서 동기를 무시하며 깎아내리는 생도들이 많이 식별된다 이는 당장 개선하고 없어야 할 사관생도의 모습이다.

우리는 항상 겸손함을 기본으로 하여 항상 배움의 자세를 지녀야 하며, 지만심과 허영심을 경계해야 한다. 몇몇 생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를 바란다.

통제형 체력단련

체력 수준 미달성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바로 17시부터 통제형 체력단련을 약 50분 간 진행하는 것이다. 이 시간에 생도들은 자신의 미흡한 종목 이외에도 모든 평가 종목을 실시한다 통제형 체력단련의 목적은 생도들의 체력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지만, 일부 생도들은 날씨도 덥고 몸도 지친 상태라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이 시간을 썩 달갑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열심히 해도 체력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생도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정말 노력했는데 안된 건가요? 남들보다 노력하지 않아 그런 것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도 사관생도의 덕목이 아닐까요?

잘 먹겠습니다

2학기가 밝았다 이번 학기도 공강 시간 개인 정비 시간에 PX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맛있는 리면과 과자를 사기 위해 설렌 생도들을 보면 랜스레 웃음이 난다. 그렇게 4학년 A생도는 설렘이 가득한 기차에 몸을 맡기고 바구니를 집는 데 성공한다.

과자, 음료수, 리면을 양껏 고르고 생활관에 복귀한 후 맛있게 먹을 생각에 벌써 군침이 돈다. 어느새 계산할 차례가 되어 카드를 꺼냈을 때 뒤에서 나지막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와 A생도는 뒤를 돌아본다

“선배 생도님, 안녕하십니까?”
같은 중대 소속이자 복학한 3학년 생도가 밝게 인사를 건넨다

“그래! 안녕~”
A생도는 최대한 상냥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는다. 빠르게 인사를 받은 후 3학년 생도의 바구니를 스캔한다 다행히 커피면과 아이스크림 몇 개뿐이다 사랑하는 동기가 자이제는 아끼는 후배가 된 생도를 위해 충분히 사줄 수 있는 양이다

A생도는 본인의 것들을 계산 후, 후배생도에게 다가가 카드를 건네주며 말한다.
“이걸로 계산해~”

후배 생도는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말한다
“제가 배고픈지 어떻게 알고 ㅎㅎ 자알~ 먹겠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카드를 전달하고 얼마 후 문자한 통이 도착한다.
‘땡땡! 국군복지단 결제완료, 금액 78000원’
그렇다. 후배 생도는 내가 본 몇 개의 음식으로는 배가 부르지 않았던 것이다.

참된 스승

교수님들은 위탁 교육이나 여러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기에 방대한 지식과 전문성으로 생도들에게 가르침을 주신다. 수업을 듣고 있으면 넓고 깊은 식견에 감탄하기도 하며, 생도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다.

한가지 예로 생도들이 즐기고 있을 때면 아전 이야기, 수업내용과 관련된 주제 등으로 생도들과 다양한 소통을 하신다. 이런 과정에서 생도들은 교수님들이 단순한 교수가 아닌 선배 장교로서 멘토의 역할이 되어주신다고 여기기도 하며 일반 대학의 수업이 아닌 진정한 사관학교의 수업을 느낄 수 있어서 만족한다고 서로 이야기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생도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진정한 요인이 아닐까?



제10회 화랑 커맨디프 경연대회

COMMANDEF

생도 생활이 끝을 향해가면서 새로운도전을 하고 싶은 생도들이 있었다. 이대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도전하고 부딪치는 삶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진 생도들이 모여 커맨디프 대회를 나가게 되었다. 참가한 인원 중에서 무기력한 자신의 삶에 맞서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 커맨디프 대회에 참가한 생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59기 국장생도 오찬 울

커맨디프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팀 단위의 훈련이 있기 전까지는 공강 시간을 활용하여 주로 개인 웨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주로 중요하게 쓰이는 근력 단련 및 하체 위주로 웨이트를 진행했고, 완전군장을 메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면서 개인 연습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팀 단위 훈련에서는 매일 방탄조끼를 착용 후 8km 달리기를 진행했습니다. 대회 직전에는 완전군장을 메고 10km 달리기를 진행했습니다. 이외에도 팀 단위 과업 수행을 위한 외줄타기 연습, 물자 운반, 화생방, 치량 밀기, 사격 연습 등 많은 과업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실제 육군사관학교에서 커맨디프 대회를 치렀을 때는 어땠습니까?

나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계 이상을 경험했습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전투부상자 처치 과업 수행 인의 심폐소생술(CPR)이었습

니다. 저희는 팔을 90도로 펴고 정식으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었는데, 타 팀의 생도들은 자세가 완전하지 않은 채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판에게 항의했지만, 심판이 대회 시작 전에 천천히 정박자로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권고하지 않았기에 저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형을 미리 경험해보지 못하고 실전에 투입되어서 완전군장을 메고 달릴 때 페이스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완주한 저희 동지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커맨디프 팀의 전체적인 인상은 어땠습니까?

대회 시작 전에 육사 생도들의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고 훨씬 뛰어날까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험해보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대회에서 3사관학교 생도들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회에 참가하여 팀별로 경쟁을 하는 대회가

지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육군사관학교 80기 이재혁 생도입니다. 앞에 얘기한 전투부상자 처치 과정에서 팀 판정에 대해 항의를 할 때 지속적으로 정당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심판에게 건의해주고 공정한 모습을 보여준 모습을 보며 본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회를 마치면서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두 팀이 이번 대회에 참가하여 2등, 5등이라는 성적을 내고 마무리했습니다. 지형지물에 대한 정보를 공부하거나 혹은 대회 준비 시간을 조금 더 가져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번 대회의 목적은 나 자신의 한계를 넘고 도전하는 삶을 경험하기 위함이었는데 정말 보람찬 대회였습니다.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었기에 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순위를 떠나 참가한 팀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후배 생도들도 내년 대회에 도전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군의 날 파견 소감

59기 기자생도 정 부민

국군의 날은 10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을 기념하고 우리 군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동시에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지정된 날로, 과거 10월 1일 공군의 날, 10월 2일 육군의 날, 11월 11일 해군의 날을 모두 합쳐 3군 기념일로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지정된 대한민국의 기념일 중 하나이다.

뜻깊은 기념일, 건군 제75주년을 맞이하여 각 군 사관생도들과 정예 부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여 서울공항과 송례문에서 광화문까지 성대한 규모의 시가행진, 시민과 군이 함께하는 교향악단 및 군가합창단을 볼 수 있었으며,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무기도 공개되어 자랑스럽고 믿음직한 대한민국의 국군의 의지를 볼 수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시도된 시민과 함께하는 군가합창단으로 파견을 다녀왔다. 육·해·공·간호사관학교 생도를 비롯한 각 군 장병들과 카투사, 국민합창대와 숙명여대 성악과 등 다양한 계층이 모인 합

창단이였다. 약 10곡 이상의 군가 메들리를 5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부르니 더 위엄있고 힘찬 느낌이 들었다.

합창단의 군가에 맞춰 도보 제대들이 본 식장으로 입장하는데 그들이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힘을 실어주고, 좋은 기운을 주어 열심히 행사에 임하도록 도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두의 간절한 염원에 불구하고 행사 전날 밤부터 오기 시작한 비는 행사 당일 내내



이어졌다. 우천으로 인하여 아쉽게도 1달여간 준비해온 모습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수는 없었지만, 굵은 빗방울을 맞으면서 곳곳에 서 있는 동지들과 국군 장병들의 모습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던 국민에게 우리 국군의 능력과 위용을 보여줌으로써, 의지와 힘을 불어넣는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의 군 생활에 국군의 날의 의미를 기억하는 차원에서 좋은 경험이 된 국군의 날 행사였으며, 국군 장병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충성제 준비, 중앙동기회의 흔적

60기 기자생도 이주형

충성제는 일반 대학교 축제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현진(59기 중앙동기회 회장) : 생도들의 자발적 참여로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 대학교와의 차이점입니다. 1983년 20기 선배님들부터 현재까지 전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충성제는 생도들이 문화 활동을 연마한 학술 및 체육 분야에서 멋을 뽐내는 자리이며, 생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는 우리 학교의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일반 대학교 축제는 인근 지역주민이 축제를 즐기러 방문한다면, 충성제는 학교 운영에 도움을 주셨던 군 장병과 군무원, 그리고 가족분들이 참여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김현준(60기 중앙동기회 회장) : 일반 대학교 축제와 충성제를 모두 기획하고 현장에서 일해 본 경험으로 비교했을 때, 충성제는 비교적 외부인의 참여가 적어 현장 관리나 프로그램 기획에서 생도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관생도들은 축제를 대하는 태도가 무척이나 진솔합니다. 일반대학 축제에선 음향기기에 올라가거나 무대 가림막을 찢어버리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 생도들은 품위와 도덕이라는 덕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축제 운영을 준비하면서 혹시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이현진(59기 중앙동기회 회장) : 학교장님과 생도대장님을 비롯한 학교 전체 간부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원활한 행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59기·60기 동기회 인원들의 적극적인 행사 준비 참여로 행사 준비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김현준(60기 중앙동기회 회장) : 충성제 속 주인공은 우리 생도들입니다. 동기들의 의견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축제 준비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상황식으로 올라가는 보고와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승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행정절차와 답변 전달에 착오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훈육관님의 관심과 정성에 힘입어 동기회의 건의사항과 여건을 보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충성대의 가을은 어느 계절보다 예쁘다. 봄의 호국정이 화려하다곤 하나, 영천에 구름 한 점 없는 날이라면 눈이 아릴 만큼 높은 하늘이 인상 깊어 누구나 가을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라 했던가. 우리 생도들의 역겹의 시간에 보상을 받듯, 충성제와 특박이라는 달콤함을 즐겼다.

화려함의 뒷면에는 누군가의 축으로 돌아간 부지런한 시간이 묻어있다. 신문사에서 이런 말자취를 기억하고자 59기, 60기 동기회장의 충성제 동정을 이번 지면에 담아보았다.

생도들이 가수 라인업에 유독 관심이 많은데, 행사 가수를 섭외하는 과정이나 기준이 있나요?

이현진(59기 중앙동기회 회장) : 먼저 생도들의 의견 반영을 가장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설문 조사를 통해 생도들이 희망하는 연예인 리스트를 확인 후 연예인 기획사와 수차례 미팅을 통해 가능한 연예인을 확인하여 섭외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성공적인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김현준(60기 중앙동기회 회장) : 연예인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령대, 계절, 트렌드 등 많은 요소를 기준으로 섭외 연예인을 선정했습니다. 기존 섭외 고려 연예인은 권은비, 프로미스나인, 멜로망스, 스테이시, 다이나믹 듀오 순이었지만, 연예인들의 스케줄과 학교 일정 그리고 행사 비용을 고려해 프로미스나인, 하이키, 박혜원을 섭외하였습니다.

학교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나 생도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현진(59기 중앙동기회 회장) : 중앙동기회는 항상 학교와 동기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도들에게 완벽한 만족을 줄 순 없더라도 상응하고자 하는 게 우리 동기회의 마음입니다. 부족하더라도 동기분들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더욱 성장하는 동기회가 되겠습니다.

김현준(60기 중앙동기회 회장) : 우리 생도들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항상 생도들이 학교 일정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는 것을 저도 생도의 입장이기에 이해합니다.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많기에 우리를 통제한다고만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더불어 우리 생도 동기회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잘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동기회 생도들에게 칭찬 한마디 꼭 부탁드립니다.

사복 출타에 대한 모든 것!

60기 기자생도 강준성

사복 출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사복 출타가 허용된 9월 1일 이후로는 본인의 기호에 따라 자유롭게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출타를 나간다고 무조건 입을 수는 없다. 출타 목적에 따라 사복 착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휴가 및 공무상 외출은 정복 착용이 여전히 원칙이지만 외출이나 외박 시에는 사복 착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상·하의는 단정한 셔츠나 면바지, 재킷 등이 가능하며 원색, 형광색 등 화려한 색상 피복, 보급 활동복 및 트레이닝복 착용이 금지된다. 신발은 단화(구두) 및 스니커즈, 운동화를 착용해야 하며, 크록스를 포함한 슬리퍼, 샌들, 하이힐 등은 착용이 금지된다. 추가적인 기타 사항으로 장신구는 착용 금지, 보급 외출 가방 휴대하여 출타 금지이며, 검은색 계열의 백팩, 캐리어(짐이 많을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때, 명품 고가 브랜드는 반입이 지양되는데, 이는 분실 등의 우려가 있고 분실 시에는 개인 책임이기에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내 통제 주요 지침은 사복 착용 시 영내 복지시설 이용이 불가하지만, 총용관내 사복 세탁 및 건조, 보급 에어드레서 사용은 가능하다. 생도 정복 등 보급 피복과 사복의 혼용 착용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통제 지침 위반 시에는 사관생도 행정예규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주어진다.

사복 출타의 장·단점

사복 출타를 통해 생도들에게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분위기의 정복이 아닌 자유로운 복장으로 개인의 개성에 맞게 입을 출타 시에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다. 또한, 굳이 사복으로 환복하지 않고 바로 약속에 가는 등 시간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드디어 생도들이 염원하던 사복 출타가 허용되었다. 사복 출타가 이미 허용된 다른 사관학교들과 비교하여 3사관학교는 늦게 허용된 편이다. 생도여단과 생도문화위원회, 명예위원회 등이 오랜 회의 후에 나온 결과물로, 현재 생도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복을 착용하고 외박 등의 출타를 나가고 있다.

오늘은 현재 시행되는 사복 출타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르는 장·단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하지만 사관생도의 3급에 해당하는 담배, 술 등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과 사복 출타 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생기는 갈등, 개인 간의 비교 등으로 유발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자주 있지 않은 휴가, 공무상 출타의 특성으로 정복을 입을 일이 많이 없어졌다는 약간의 아쉬움도 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사복 출타는 건전하고 올바른 생도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개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지침에 의한 정확한 복장 착용이 요구된다.

현재의 지침도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지침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수많은 피드백으로 점차 만족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더 나은 생도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관생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칼럼 I



대위 김 그 술
(인문학처군사사학교수)

'손의 제법법칙' 각 문자의 의미

道 뜻을 세운다	天 천사(天)를 얻는다	地 지리(地)를 얻는다	將 우수한 부하를 모은다	法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頂 비전을 선명하게 그린다	情 정부를 표명한다	略 적들을 대해 전략을 승리한다	七 70퍼센트의 승산이 있는지 파악한다	鬪 70퍼센트의 승산이 있다면 과감하게 싸운다
一 절저히 1등에 입자한다	流 사회의 흐름을 읽고 세력이 융통한다	攻 대형 공격력을 얻는다	守 모든 리스크에 대비하여 수비력을 갖춘다	群 단독이 아닌 집단으로 싸운다
智 다양한 지계 능력을 길러준다	信 신뢰할 만한 인물이 된다	仁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한다	勇 싸우는 용기와 패자는 용기를 보인다	嚴 부하에게 대해서는 엄격함을 보인다
風 움직일 때는 바람처럼 빠르다	林 중요한 협상은 숲에서 벌인다	火 공격은 불처럼 맹렬하게 달린다	山 위기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海 패는 상대를 포위한다

■ 승리의 전략 □ '손자' 시계 관에서 ■ '손자' 군용 관에서

1편 시계(始計)편에서 추출한 단어로, 이 다섯 문자는 모두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소양을 가리킨다. 지적 능력(智)을 높은 수준으로 갈고 닦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신뢰(信)할 만한 인물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며,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것(仁) 다짐함과 동시에 싸울 때는 싸우고, 물러날 때는 퇴각하는 용기(勇)를 겸비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때로는 사랑하는 부하에게 엄격(嚴)해져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손의 제법법칙' 다섯째 줄의 품위

역사 속 인물과 동양 고전의 교훈을 삶의 원칙에 적용해 오늘날 세계적 그룹의 리더가 된 손정의 회장의 철학을 소개했다. 지난해 손정의가 이끄는 소프트뱅크 그룹은 상반기 6개월 동안 40조 원이 넘는 손실을 보았다. 그해 8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손정의는 패전 후 도망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그림으로 남겨오랜 기간 반면교사 삼았던 것처럼, 자신도 '절치부심(切齒腐心)' 하겠다고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최근 손 회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AI(인공지능)는 인류보다 10배는 똑똑해질 것"이라며 AI 중심으로 사업 구조 재편을 선언했는데, 소프트뱅크의 성공신화를 다시 한번 재현해 낼 것인지를 주목하고 있다.

역사적 교훈을 어떻게 나 자신에게 적용할 것인가?

2022년 까지 일본 재계 1위 자산가였던 한국계 일본인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은 '오다 노부나가', '사카모토 료마' 등 일본 역사적 영웅들의 전기와 더불어 중국 손무의 『손자병법』을 읽고, 그의 나이 19세에 '인생 50년 계획'과 함께 손자병법 내용의 핵심 14글자와 자신이 창작한 11문자를 합친 '25문자'로 압축한 '손의 제법법칙'을 정립했다.

손정의의 <인생 50년 계획>

- 20대에 이름을 날린다
- 30대에 최소한 1천억 엔의 군자금을 마련한다
- 40대에 사업에 승부를 건다
- 50대에 연 1조엔 매출의 사업을 완성한다.
- 60대에 다음 세대에게 사업을 물려준다.

'손의 제법법칙' 첫째 줄의 도천지장법

(道天地將法)은 『손자병법』 제1편 시계(始計)편에 등장하는 단어이다. 이를 자신의 사업에 적용하여 먼저 뜻을 세우고(道), 하늘로부터 때를 얻은 뒤(天) 지리적 우세, 환경을 얻어(地) 우수한 부하를 모은 후(將),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法) 자신이 만든 소프트뱅크를 일류 기업으로 성공시켰다.

'손의 제법법칙' 넷째 줄의 지신인 용엄(智信仁勇嚴) 역시 『손자병법』 제

화산(風林火山)은 전술을 논의함에 있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관한 원리를 압축한 단어로, 『손자병법』 제7편 군쟁(軍爭) 편에 등장한다. 사업에서도 움직일 때는 바람(風)처럼 빠르게 신속해야 하고, 중요한 협상은 숲(林)과 같이 고요하고 극비리에 진행하며, 공격할 때는 불(火)처럼 맹렬하게 달려나가되, 위기에 빠져도 산(山)과 같이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기에 비로소 성공할 수 있었다고 손 회장은 말한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의 기록인 역사(歷史)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영국의 역사학자 E. H. 카(Edward Hallett Carr)는 그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를 "역사가와 사실의 끊임없는 상호 과정,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한다. 이와 함께 『논어』 위정(爲政) 편에서 따온 '온고지신(溫故知新)'의 고사성어처럼, 현재의 시각에서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통해 그것을 어떻게 나 자신에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다.

칼럼 II



중위 오 세 영
(학교본부 법무실장)

“군대 내에서 인권을 보장하려는 분위기가 강화되다 보니 부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한 문장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질 수 있다.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유보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만 옳고 그름을 떠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군대 내에서 인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군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또 이를 수용할 때만이 비로소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집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 지지와 사랑은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에 사실상 필수 요소라는 점도 우리 군이 장병 인권 보호

를 위해 더 노력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군대 내에서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부대 운영에 어려움을 준다고 평가하는 이들의 주장은 대개 군대는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군대는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데 하급자들의 인권 보장 요구에 귀 기울이다 보면 명령 복종 체계가 흐트러지고 결과적으로 군대 조직의 질서가 붕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군이 결국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직이라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다.

이는 인간이므로 이들을 일방적인 명령을 통하여 통제하려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 사회적 요구에 따른다는 수동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라도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군에 소속된 장병 개개인의 충성도를 높이고 그들이 군인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활발한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려면 이들의 자발성이 필요한다. 이를 위해선 군이 장병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처럼 장병의 인

우리 군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러시아의 많은 국민이 징집을 피해 해외로 떠나고 군장병들이 후퇴하거나 진지를 버리고 도주하는 동안 우크라이나의 많은 국민은 자발적으로 군입대 행렬에 동참하고 있으며 적극적, 능동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단순히 장병 인권 보호에 따른 결과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결국 장병 더 나가 사회구성원의 신뢰를 얻어낼 때 그 군대가 잘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권 보장과 부대 문화 조성

민주주의와 군사적 효과성(military effectiveness)의 관계에 대한 여러 경험적 연구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가 권위주의 국가의 군대에 비하여 효과적이라고 밝혀진 점이 이를 방증한다. 병사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자발성의 정도가 높은 민주주의는 권위주의 국가보다 병사들의 사기와 전투 의지가 높다. 다시 말해 군에 소속된 개인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피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사고하며 움직

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 군에 간부로 재직하는 인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의 생도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차 임관하여 장병들을 상대하는 최일선에 서야 하는 생도들로서는 평소 자기가 자신 그리고 동기들의 인권 보장에 대하여 민감하게 인식할 필요가 크다.

지난해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한 지난날

우리 군을 구성하는 장병의 학력 수준, 지적 수준 그리고 그들의 권리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제 이들은 지휘관이 일방적으로 이끌어갈 대상이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 설득과 소통을 통하여 함께 가야 할 대상이다.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 지휘관, 그런 지휘관에게 자발적인 충성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장병들. 이것이 바로 우리 국군이 나아가야 할 모습일 것이다. 필자도 육군3사관학교의 인권담당 군 법무관으로서 이러한 부대 문화를 조성하는 데 책임감을 느끼며 근무해야 함을 오늘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다.

명예 칼럼리스트 칼럼



홍 주의
(대한한국의사협회 회장)

신념은 기적을! 노력은 천재를 만든다!

10대 후반을 지난 무렵, 서울의 모 학원 외벽에 걸려있던 현수막 글귀였습니다. 당시 힘든 시기를 앞에 두고 있던 혼란스러운 필자에게 무엇인지 모르게 가슴에 강렬히 와닿는 문구였습니다. 이후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되뇌는 문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와 유사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등 사람의 노력을 강조하는 글귀들을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글귀를 접하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거나, ‘말은 누가 못해?’라는 태도로 저런 경구를 받아들이는 모습 또한 쉽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우리들의 준비된 태도, 즉 일상의 마음가짐으로 신념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빈낙도와 유유자적함을 즐기려는 것이 기본 습성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흔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어한다’입니다. 이는 인간의 편안함을 희구하는 본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를 극복하고 나아가길 독려하는 선인들의 경구가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

직흥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목적의식 없는 결정은 결정을 많이 내릴 수록 서로 모순되게 되거나 흐지부지되며 이러한 경향은 확실한 답이 있는 문제보다 딜레마에 봉착하거나, 이해가 상충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에서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개인의 신념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게 되거나 반사회적일 경우에는 공공의 인성을 위해 오히려 신념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주

경험이나 사고에서부터 비롯된 자신만의 정당지를 상대에게 강요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확증 편향과 연관되는 ‘신념 고착’이라고 합니다. 신념 고착은 한마디로 자신이 지닌 신념에 집착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신념 고착의 흔한 예시로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습니다. 개인적 삶에도 영향이 있지만, 공적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너무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 가장 무섭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진실을 알 생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잘못된 신념은 사회에 해악을 가져올 뿐입니다. 이런 신념은 극단적으로 치우칠 수 있기에 신념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처한 현실과 위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굳게 믿는 마음(信念)’은 대상에 대한 것도 될 수 있고, 사상에 대한 것도 될 수 있으며, 이런 경계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정립된 신념은 어떤 목적한 바를 이루어내는데 촉매제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올바르게 정립된 신념은 어려워 보이는 일도 성취할 수 있는 기적을 이뤄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노력은 어떤 누구보다 자신을 유능하게 만들어 내게 될 것입니다.

신념은 기적을!
노력은 천재를 만든다!

나라, 본성이 이렇게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자기 자신을 지목하는 것입니다.

신념은 어떠한 개인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며, 신념이 없는 삶은 매우 우유부단하고 모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념은 인간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신념이 없는 인간은 그날그날 되는대로 욕구에 따라 살 뿐이며,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순간이 오면 결정을 판단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워 그냥 아무렇게나

변에서 타인과 합리적인 대화가 잘되지 않는데, 합리적 근거나 논거를 제시하지 않고 소위 ‘우기기’를 통해 본인의 신념을 드러내는 사람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신념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며, 자신의 신념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줄 아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가 없는 신념은 신념이 아닌 아집에 불과하며, 이런 신념이 극단적인 사고방식과 결합하면 때로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철저히 개인적인

저명인사 칼럼



유재성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는 프로그램이 재밌게 보였다.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이 유쾌, 발랄, 엉뚱한 캐릭터에다가, 이들이 낯선 곳에서 몸을 부대끼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신선했다. 이들이 우리에게 생소한 문화를 인정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더 나아가 낯선 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들과 교감, 동화되어가는 모습이 흐뭇했다. 나는 이런 출연자들의 모습이 현재 한국의 일반적인 젊은이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매우 진취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여러 차례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세계 여러 곳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며 교감하고 동화되면서도 스스로를 또렷하게 드러내는 일은 그리 도전

적인 과제가 아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일종의 반전이다. 우리가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태어난 김에 산다’라는 표현은 매우 소극적이고 자조적인 뉘즈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구에 태어난 김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 일주라는 ‘창대한’ 목표를 썼다. 옳거나 싫다.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뿐만 아니라, 태어난 김에 세계 챔피언, 인류 봉사, 홍익인간 등 못 할 일이 무엇이 있으랴? 꼭 구체적인 ‘목표’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 태어났는데, 태어난 김에 천재나 재벌가나 등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유복한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좋으련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태어난 조건은 그저 ‘평범’하다. 태어난 김에 얼마 무시한 목표를 가지기엔, 내게 주어진 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 기회는 여전히 불평등하며, 과정은 그리 공정하지 않고, 따라서 결과도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한 세상에서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태어난 김

까 한다. 어차피 일어났으니까 말이다. 그러다 보면 루틴이 가져다주는 ‘양질 전환’이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사실 양질 전환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지만 대단한 법칙은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뭐라도 하면, 그것도 꾸준히 하면, 뭔가가 일어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일어난 김에 하는 프랭크 30분이, 몇 달이 지나면 탁본을 뜬만한 ‘식스팩’을 선사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양질 전환은 프랭크만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다.

태어난 김에, 일어난 김에

도 태어난 김에 열심히, 재밌게, 행복하게 등 여러 ‘태도’에 대한 표현을 덧붙여도 좋겠다 싶다. 그런데 ‘태어난 김에’는 나의 삶이 나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 아닌 타인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나 아닌 타인은 나의 부모다. 그러니까 나의 삶은 나의 부모의 의지 혹은 사랑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의지나 사랑이 아닐 수도 있으나, 나의 삶이 나의 의지와는 독립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에’ 어떻게든 살아내야 한다. 아니, ‘그냥’ 살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등을 해내고 싶다. 어찌해야 할까?

필자는 ‘일어난 김에’를 제안한다. 일어난 김에 뭐라도 하는 것이다. 일어난 김에 프랭크 30분 하기, 일어난 김에 팔굽혀펴기 50개 하기, 일어난 김에 30분 외국어 공부하기 등 말이다. 그렇게 일어난 김에 하는 ‘루틴’으로 뼈곡하게 하루를 채우는 건 어떨

그리고 만약 인생의 중요한 진로를 이미 선택했다면, 여러분들처럼 군인의 길을 걷고자 이미 결정했다면, “군인이 된 김에, ‘스타’ 한번 해보자”라는 창대한 목표를 가질 수도 있겠다. 일어난 김에 프랭크 30분을 하면서 ‘스타가 한번 되어보자’를 끊임없이 되뇌고, 어찌하면 그렇게 될까를 궁리하는 거다. 태어난 김에, 그리고 일어난 김에, 그리고 군인이 된 김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성인인 여러분들의 몫이다. 게으른 불평만 하기에는 이 세상은 아직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의 ‘헬’은 아니다.

2023 트렌드 노트

기계, 반려와 애착의 대상이 되다



최재연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 연구원

당신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스크린이 몇 가지인지 생각해보자. 휴대폰과 TV는 기본이고 노트북, 모니터와 태블릿 등 4~5개를 사용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많은 스크린을 동시에 몇 개까지나 사용하고 있을까? TV로 넷플릭스를 보고, 게이밍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면서 휴대폰으로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확인하는 멀티태스킹 일상이 여기저기서 펼쳐진다.

바야 하는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멀티태스킹을 한다. 이제는 오롯이 TV만 보고 있는 건 시간이 아깝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N개의 스크린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동시에 소비하는 모습이 쉽게 관찰된다. 그리고 여가활동에만 멀티태스킹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업무나 공부를 할 때도 N개의 스크린이 동원된 멀티태스킹은 이제 기본 소양이다. 노트북으로는 수업 교재를 펼쳐놓고, PC 모니터로는 교수님이 녹화한 수업을 재생하며, 태블릿으로는 필기를 하고, 동시에 휴대폰으로는 열품다 앱으로 공부시간을 기록하고, 그 장면을 다시 '#공부스타그램'으로 인증하는 학생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공부스타그램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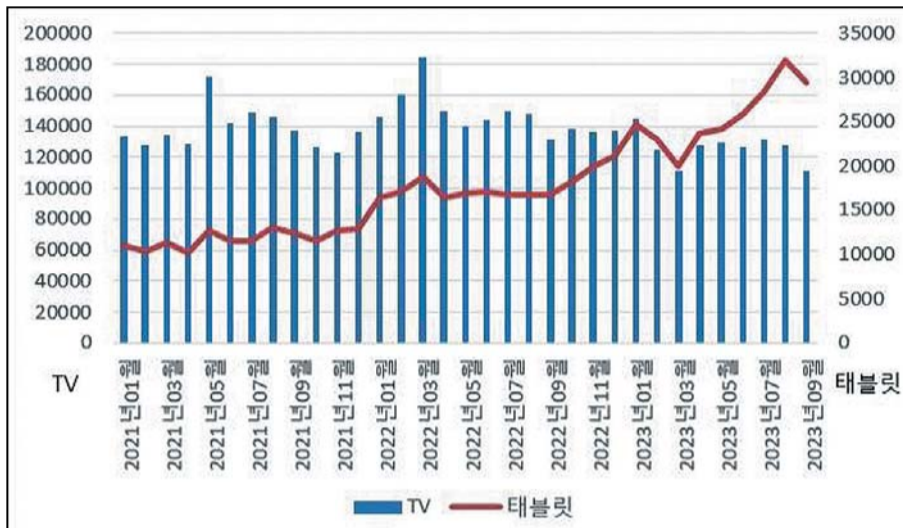
출처: 공시생 진주인스타그램 @pearl_o

이런 현상을 강화하고 촉진한 것은 코로나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교육 형태를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의 생활에 다양한 디바이스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언급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태블릿이다. 최근 2년 9개월 동안 TV의 언급량은 절대적으로 많지만 큰 등락이 없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오히려 2023년에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태블릿의 언급량 추이를 살펴보자. 2021년부터 2023년 9월 현재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심지어 언급량이 3배가량 증가했다.

의 종류에 따라 가장 적합한 오디오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것이다.

['TV vs. 태블릿' 월별 언급 추이]



출처: 생활변화관측소, 블로그+커뮤니티, 2021.01.01.~2023.09.30.

대학생에게 태블릿은 필기용으로 쓰인다. 휴대성 덕분에 원래도 태블릿이 필기 노트 대신 사용되고 있었으나, 아직은 노트북을 들고 다닌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강의가 계속되면서 기존의 노트북은 수업 영상을 틀어놓는 용도로 쓰이고, 필기는 태블릿으로 옮겨갔다. 코로나를 계기로 목적성이 애매했던 태블릿에 드디어 명확한 용처가 부여된 것이다. 세분화된 디바이스의 용도는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다. 태블릿의 언급량 증가에서도 알 수 있듯, 엔드코로나 시대가 왔음에도 태블릿을 더욱 찾는 모습이다. 디지털 기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오디오 디바이스를 지나칠 수 없다. 개인이 소유하는 오디오 디바이스가 늘어나면서,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기기도 달라졌다. 드라이브를 할 때는 스피커를, 드라마를 보거나 작품을 감상할 때는 이어폰을, 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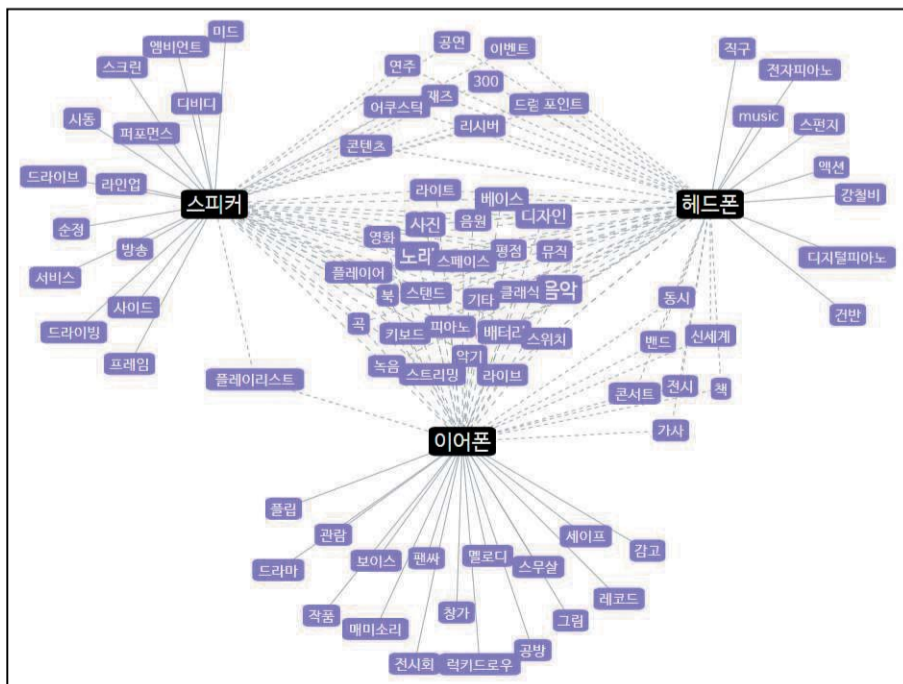
“안그래도 스피커 빵빵하게 크게 노래 듣고 싶어서 오밤중에 뽕뽕 드라이브 하고 왔어요 ㅋㅋㅋ 아우 속이 넘 썩원~”

“전 드라마 볼 때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연결해서 봐요 ㅎㅎ 저랑 비슷하신 분 많으시죠? 아이들 잘 때 핸드폰으로 보다 보니 그냥 소리로 보면 집중이 안 되네요, 티비도 이어폰으로 연결해보니 집중도 잘되고”

“삼천 년 만에 피아노 배우러 갔다 왔는데 재미있음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집에 있어서 악기값 안 들고 방음방 없어도 되고(헤드폰 끼면 연주 가능, 디지털임) 하니까 피아노 다시 배우기로 했음”

영상 콘텐츠뿐 아니라 듣는 콘텐츠에서도 멀티태스킹은 중요하게 나타난다. 시선을 주지 않고 들고만 있어도 콘텐츠

[스피커 vs. 이어폰 vs. 헤드폰 연관 문화/여가 네트워크]



출처: 생활변화관측소, 트위터+블로그, 2021.01.01.~2023.09.30.

기를 연주할 때는 헤드폰을 선택한다. 최적의 게임 플레이를 위해 게이밍 노트북을 따로 장만하는 것처럼, 오디오 콘텐츠

를 소비할 수 있으니 오히려 더욱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동 중, 일하는 중, 운동 중, 공부하는 중, 심지어 수면 중에도 소



비가 가능하다. 디바이스 소비의 트렌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개인화, 다양화, 세분화다. 다같이 공유하던 디바이스가 개인의 디바이스로 진화하고, 한 사람이 소유하는 디바이스의 종류가 많아지며, 같은 디바이스 안에서도 목적에 따라 전문화된 세부 기기를 갖춘다. 엔드코로나 시대가 열려도 이미 시작된 변화는 앞으로 더 진화할 뿐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한번 나의 개인 태블릿이 된 이상 다시 가족과 공유하려는 마음은 들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사용이 뜸해진다 해도 언제까지나 나만의 태블릿일 것이다. 그리고 개인화된 기기는 개인의 '애착' 디바이스로 점점 강화될 것이다. 이처럼 디바이스를 대하는 태도, 사용하는 상황, 부여하는 가치가 달라지면 소비의 기준 또한 변화할 것이다. 디바이스가 개인의 반려와 애착 대상이 될수록 얼마나 내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질 것이며, 용도에 따라 세분화된 디바이스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해줄 수 있는지를 고려할 것이다.

동문(同門)의 소리 I

인생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나가는 것



대위 유 민정(3사 547)
제5포병여단

필자는 현역 장교로서 11월에 예정된 재입대를 준비하고 있다.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 올해 회전익 항공기 준사관 선발 시험에 합격했고, 최근 규정이 바뀌어 현역 장교도 합격한 해당 연도에 입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학창시절 처음 하늘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된 후 십수년 만에 현실로 이뤄낸 꿈이다.

사실 처음부터 하늘을 향한 도전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던 당시 항공대학교 지원을 고민했지만, 필자의 신체가 당시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도전 자체를 할 수 없었다. 결국, 타 대학에 진학해서 미국 항공 유학이나 국내 교육원에 대해 한번 알아봤지만, 천문학적인 학비를 들여도 취업이 보장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렇기에 3사관학교 생도가 되어 알게 된 육군 항공의 존재가 필자에게 있어 커다란 기회라고 여겨졌다. 특히, 임관 전 항공사령부 견학과 더불어, 임관 후 자대에서 실시했던 공중보급수송 훈련을 통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육군 항공은 군의 핵심 전력이자 매력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하늘은 조종간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임관 전부터 항공 장교 모집 전형에 반드시 합격하고 말겠다는 열망으로 영어, 면접 등 요구하는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또한, 필자 나름대로 동기부여를 받고자 30년 치 군 생활 목표 및 계획도 세워둔 상태였다. 그렇게 하나의 길만을 바라보고 생도 때부터 달려오다 '비선'이라는 벽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나를 허락하지 않는 하늘 - 그것만을 우러러 바라왔던 지난 온 내 인생에 대한 원망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던 나날이 얼마나 지났을까? 분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꿈을, 그저 꿈으로서 마음 한 칸에 접어두고 말 것인가?', '아니다, 이대로만 살다 갈 수는 없다.' 많은 고민 끝에 나의 꿈을 실현할 마지막 기회로 항공 준사관 시험에 도전했다. 시험 준비를 시작한 21년 9월부터 최종 발표가 났던 23년 4월까지, 이 신문의 모든 지면을 다 채우고도 넘쳐흐를 많은 일이 있었다.

'내가 전업 수험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늘 나 자신을 괴롭혔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버팀목이 되어준 가족 및 친지, 친구들, 그리고 전우들이 없었다면 진즉에 도전을 포기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소중한 사람들의 응원과 더불어, 나를 가로막는 것도 이젠 지쳐버린(?) 하늘의 허락으로 온 좋게 합격의

영광을 거머쥌 수 있었다.

우리 생도들도 분명히 마음속에 본인만의 목표나 꿈이 한 가지씩 있을 것이다. 물론 없어도 상관없다! 앞으로 만들어 나가면 되니까. 각자의 마음속에 반짝이는, 바로 그것을 계속밖으로 꺼내 보자. 그렇게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꿈은 이루어진다.' 정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더 나아가, 목표에 다가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자신만의 소중한 인생의 자산이 될 것이다.

'합법적인 강등'으로 인한 재입대를 앞두고 만감이 교차한다. 하지만 필자는 장교로서 지내왔던, 그리고 시험 준비를 하며 겪어왔던 지난 세월의 영욕이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데 환한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 믿는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등불로 멋지게 인생을 개척해 나가길 응원한다.



동문(同門)의 소리 II

“JUST DO IT”



중위 송 민제(3사 567)
제1기갑여단

“낡은 사고방식이 그들의 가장 큰 부채이다. 그것이 부채인 이유는 그들이 그러한 사고나 행동방식이 어제의 자산이었고, 어제는 이미 가 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유연한 사고방식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 항상 배우고, 배운 것을 잊고, 다시 배워야 한다.

군 생활을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여 열정을 잃는 선후배, 동기들을 정말 많이 보았다. 다음은 필자의 경험으로 스스로 목표와 열정을 찾는 방법이다.

첫 번째, 클리셰(cliché)에 집중하라

클리셰(cliché)란 진부하거나 틀에 박힌 생각 따위를 이르는 말이다. 예를 들어, '왜 항상 나는 피곤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이러한 클리셰의 답을 찾는 것이 좋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지, 수면시간은 충분한지, 영양제는 잘 먹고 있는지 등의 답을 찾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다. 클리셰에 집중하고, 기본으로 돌아가 그 해답을 찾는다면 목표와 열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독서하라

성인이 1년에 책 몇 권조차 읽지 않는 시대이다. 과거의 필자도 역시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최소 30분씩 책을 읽고 있다. 필자는 출퇴근할 때 항상 손에 책을 쥐고 있으며, 습관을 들이면 한 달에 2-3권씩은 충분히 읽을 수 있다. 특히, 한 분야의 책을 최소 5권 읽고 공통적인 내용을 유추하면서 읽게 된다면 더욱 빠른 속도로 책을 읽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책을 읽기 어렵다면 오디오북을 청취하는 것도 추천한다.

세 번째, INPUT과 OUTPUT의 비율을 유지하라

INPUT은 재료이고 OUTPUT은 요리라고 생각하면 쉽다. 좋은 재료를 얻는 행위가 독서, 강연, 웹서핑이라면 요리의 행위에는 명상, 산책, 일기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독서만 한다고 해서 삶이 바뀌지는 않지만, 독서 후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더욱 피부에 와닿으며 삶이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요즘 SNS의 릴스, 숏츠, 틱톡과 같은 자극적인 시대에 도파민이 과다로 분출되어 이런 OUTPUT의 행위는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좋은 재료를 얻지 않고 하는 OUTPUT은

무의미한 행동이란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네 번째, 일단 시작하라

OUTPUT의 행동까지 했다면 시작하면 된다. 0과 1은 다르지만 1과 2는 별반 다르지 않다. 그것을 느꼈다면 절반 이상은 한 것이다. 심리학적으로도 하지 않고 나서 하는 후회가 하고 나서 하는 후회보다 그 감정이 더 심하다고 한다.

점차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도 변하고 있다. 단순히 시험을 잘 보고,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것이 아닌, 보다 정보를 잘 수집하고 상황을 잘 읽어내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유연한 사고방식을 통해 우리의 열정을 살려보는 것은 어떨까?

아인슈타인의 말로 마무리하겠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9기 임관 50주년 기념행사

지난 9월 22일, 9기 동기회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가족 포함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관 5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9기는 1973년 임관하여 전후방 각지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인의 기개를 펼쳐왔으며, 전역 후에도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웅들이다. 이번 행사는 발전된 학교 및 생도시설 견학, 생도식 오찬, 충성의식 참관, 기

념행사, 만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충성대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박주왕 총동문회장은 9기 동문들에게 축하와 더불어 총동문회 발전을 위한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모교와 동문 발전을 위한 성원을 부탁하였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 오이코스 대학 총장인 김종인 동분에게 자랑스러운 3사인상을 수여하였으며, 9기 동기회에서는 학교 총동문회 발전기금 500만 원을 기부하였다.

3사총동문회



30기 임관 30주년 기념행사

지난 9월 8일, 30기 임관 30주년 기념행사를 육군3사관학교에서 진행했다. 박주왕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한경수 사무총장, 원강희 홍보이사, 편집권 학교 발전재단 이사장 등 자랑스러운 3사 동문들이 영천까지 직접 방문하여 함께

축하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배현국 학교장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각 기수 선·후배들의 축하 화환과 기념품, 축하 메시지 등 열렬히 격려를 보내주어 행사가 더욱 빛날 수 있었다. 총동기회장은 "30기 동기생 모두의 마음을 모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3사총동문회



33기 임관 25주년 기념행사

지난 9월 9일, 33기 동기회는 임관 25주년을 맞이하여 대전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33기는 생도 부활의 첫 기수로서 자부심도 대단한 기수이다. 9월 9일 본 행사에 앞서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3명의 동기생을 찾아가 참배를 하였으며, 유가족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본 행사에서는 새로운 임원진을 선발하고 예산 분야에 대한 보고와 향후 활동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기존과 달리 현역 동기회장과 예비역 동기회장을 구분하지 않고, 이번 행사부터 총동기회장으로 통합하여 송찬수 동기임원을 새롭게 선출했다. 향후 33기 동기회는 순직한 동기생들의 가족을 위한 장학회를 설립하여 활동하기로 하였으며, 이 밖에도 각종 동아리 활동과 지역 동기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3사총동문회



38기 임관 20주년 기념행사

지난 10월 13일, 38기 동문들의 임관 20주년 행사를 육군3사관학교 충성연병장에서 거행하였다. 이날은 학교 창설 55주년을 맞아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한 만큼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 박주왕 총동문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학교는 기나긴 역사 속에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3사인만이 가지는 뜨거운

국가관과 사명감 그리고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였다"며, "그 중심에서 헌신해 주신 5만여 선후배 및 동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38기 동문들의 임관 20주년을 축하하고 동기회의 발전을 기원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될 모교와 총동문회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도 강조하였다. 38기 동기회에서는 임관 20주년을 기념하여 학교 총동문회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3사 총동문회**



총동문회, 계룡시장 방문

지난 9월 13일, 총동문회가 계룡시장 이응우(16기) 동문을 방문하였다. 이응우 동문은 일찍이 정치에 큰 뜻을 품고 육군 항공 대령으로 전역한 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륜을 쌓아 2022년 계룡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총동문회는 지금까지의 군부대 위주 격려 방문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동문을 찾아 격려하고,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날 박주왕 총동문회장은 계룡시장 당선 및 모범적인 시정으로 동문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이응우 동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으며, 이응우 동문도 총동문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3사 총동문회**

말씀이 없으니까 좀 못이겨~ 미하하 내 얼굴이 못이겨~

「사진으로 보는 3사관학교에서의 추억」

추억의 사진 응모 이벤트-!

2023. 11. 1.(수) ~

이런 걸었구만, 흥났잖아 미하하

그때 그 시절 추억을 찾아서...

1번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던 3사관학교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찾는다.

*3사관학교에서 찍은 사진이면 전부 오~케이

그때 그 시절 추억을 찾아서...

2번

사진을 표현하거나, 당시를 회상하는 문구를 작성한다. (최대 20자)

예) 보고싶다 000 전우야, 예) 영천의 무더위와 나의 생도사진

그때 그 시절 추억을 찾아서...

3번

응모 아~메일로 사진 발송, 특별한 추억이 담긴 사진일수록 선정될 확률 업!

* 5~10명이 당첨되며, 당첨자에게 소정의 상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참여하나요?

응모내용 과거 3사관학교에서 촬영한 군생활의 추억과 생활상이 담긴 사진

응모방법

1. 이메일 접수 (3academy3600@mnd.go.kr)
 - * 각종 발송에 필요한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를 요청드리며, 개인정보 폐기일 및 오기일 지 당청에 귀속됩니다.
2. 1인당 3장 이내 사진 파일 제출 (제출 시 20자 내 설명문구 포함)
3. 디지털 사진 (jpg 형식의 파일 제출)

유의사항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사진과 자연은 추후 전문 제작 시 지면 편집 및 학교 콘텐츠로 활용됩니다. *당첨자는 메일 발송에 학교 SNS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 메일 5~10명을 선정하며, 1번원 상당의 커피쿠폰 지급 예정

문의사항 육군3사관학교 공보정훈실 문화예술담당 (054-330-3605, 010-6641-6468)

오호호 흥겨웠던 옛날이, 내게 말년엔 같나겠어, 허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학교 발전재단 소식

2023년도 학교발전기금 참여 현황

'23. 9. 1 ~ 10. 31까지 기부현황입니다.

※ 범례 : 해당기간 기부액 (총 기부액), 단위 : 만원

총 자산 93억 8천만원(2023.10.31 기준)

■ 단체

나재선(주)제이슨에프엔티 1,000만원,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1,000만원, 3사9기 동기회 1,000만원, 3사30기 동기회 1,000만원, 3사38기 동기회 1,000만원, 3사57기 동기회 1,000만원, 재교3사동문회 200만원

■ 학교발전 동참 특별기부자('23. 9. 1 ~ 10. 31 기부현황)

천운환(육사#47) 380, 김호길(육사#48) 279, 두석주(육사#51) 2228, 류지만(육사#52) 211, 이우진(육사#54) 290, 변용성(육사#58) 2129, 이주실(육사#59) 1(100), 김대영(육사#59) 2199, 문은석(육사#59) 2102, 홍희중(육사#61) 2123, 홍인재(육사#63) 258, 김희준(육사#67) 222, 문준호(육사#67) 2(68), 김홍재(육사#71) 4(8), 한덕수(학군#26) 2(133), 남기웅(학군#29) 240, 임문택(학군#34) 234, 송경재(학군#37) 2152, 이정훈(학군#38) 2112, 정우람(학군#46) 246, 홍현신(학군#48) 248, 유성국(학군#54) 2(3), 권영환(학군#56) 2(16), 최재호(학사#29) 2(152), 임도현(학사#54) 2(131), 구주현(학사#55) 2(54), 임채현(학사#55) 1(114), 성현애(학사#56) 2(74), 심정현(학사#58) 2(62), 최윤정(간사#38) 2(67), 송소연(간사#58) 2(48), 문길섭(준위) 2(10), 송승현(원사) 2(9), 강필승(군무원) 2(16), 이수진(군무원) 2(38), 정시연(군무원) 2(49), 최지욱(군무원) 2(3)

■ 졸업생 가족('23. 9. 1 ~ 10. 31 기부현황)

윤종택(#38 윤호영 부) 10(450), 김종국(#41 김성준 부) 20(420), 조경해(#45 황정태 모) 10(940), 백인숙(#47 000 모) 2(63), 성동모(#50 성열환 부) 4(258), 안순봉(#51 박상응 모) 20(1220), 김현미(#52 오치원 모) 2(75), 이영미(#52 황성규 모) 6(376), 임성영(#52 임강민 부) 2(8), 정정화(#52 조강현 모) 2(368), 박일심(#53 정필승 모) 2(170), 조성숙(#53 유영빈 모) 4(176), 정의숙(#54 홍석규 모) 100(200), 김명월(#55 유동원 모) 30(130), 서완수(#55 서지찬 부) 4(134), 정원섭(#55 정준영 부) 2(144), 송학빈(#56 송용준 부) 2(90), 정희숙(#56 배웅희 모) 20(1430), 조재훈(#56 조성진 부) 60(530), 강혜영(#57 고원석 모) 1(37), 김경남(#57 김민우 모) 2(37), 김근택(#57 김광진 부) 4(78), 김순말(#57 김준모 모) 6(68), 박경석(#57 박찬환 부) 4(86), 양내석(#57 양철민 부) 20(390), 오유미(#57 김주현 모) 4(82), 이동희(#57 박찬환 모) 6(113), 지마리아(#57 김대현 모) 10(315), 김현영(#58 김범수 부) 10(105), 유영환(#58 유수민 부) 4(32), 최걸순(#58 최승환 부) 2(43), 한만근(#58 한현우 부) 2(72), 현석호(#58 현민석 부) 3(3)

■ 재학생 부모('23. 9. 1 ~ 10. 31 기부현황)

▶ 4학년부모

김애령 6(60), 임승남 4(40), 장연복 2(21), 정신 2(20), 정영남 4(40), 조철만 6(26), 최형춘 2(16), 현석호 3(3)

▶ 3학년부모

손학민 40(160), 윤희정 60(110), 임성영 28, 장은심 20(80), 정미경 10(45), 정양수 10(60), 정지한 10(30), 홍영욱 2(9), 홍혜숙 2(9)

■ 졸업생('23. 9. 1 ~ 10. 31 기부현황)

▶ 1기 김용하 8(208), 남훈조 5(1499), 이기권 1(564), 임관택 2(106), 최익환 2(108) ▶ 5기 김영찬 6(121), 김일순 10(455)

- ▶ 9기 권영호 10(530), 김민기 6(1280), 윤지환 6(219), 최병학 10(1365)
- ▶ 10기 오정석 20(160), 최영돈 500(8500) ▶ 13기 문성득 20(500)
- ▶ 14기 김길영 2(124), 김중환 2(82), 안호 20(2,230), 이순진 20(1000), 이웅진 20(450), 이종학 4(151) ▶ 15기 김성언 2(552)
- ▶ 16기 이영호 2(153), 이종우 2(186), 황병태 2(334)
- ▶ 18기 구연덕 2(156), 금용백 6(648), 노희태 5(272), 이기환 2(51), 진기상 4(1128)
- ▶ 19기 김익수 4(235), 이종형 6(332), 이창호 6(654), 홍성식 2(221)
- ▶ 20기 박권순 4(200), 서정열 2(519)
- ▶ 21기 신철수 2(1,316), 이정문 4(262)
- ▶ 22기 정경호 2(71), 조태환 4(191), 천병규 4(500), 홍성덕 10(261)
- ▶ 23기 김태일 2(256), 신영찬 2(97), 오승욱 4(316), 정철재 4(233), 최승환 2(33), 허강수 4(331)
- ▶ 24기 광종만 4(104), 권오봉 2(240), 김도형 2(258), 김성래 4(84), 김지영 20(1038), 모경원 2(253), 박세철 2(96), 방성대 6(187), 이문휘 2(118), 정정현 2(217)
- ▶ 25기 문봉성 4(237), 배현국 10(35), 장무수 2(75), 전희준 2(331), 조재희 2(149), 홍은표 2(224)
- ▶ 26기 고창준 10(404), 신태영 2(119), 유근환 2(59), 이덕우 2(153), 이완주 6(196), 이태인 4(114), 임우영 2(270), 장용빈 2(149)
- ▶ 27기 김관수 6(157), 김덕중 2(94), 김성오 4(82), 김용범 4(66), 김지덕 2(48), 김호복 8(361), 나현민 4(212), 석수열 2(71), 원희문 1(328), 이희순 2(266), 정월균 2(70)
- ▶ 28기 권승영 1(38), 권양철 2(134), 박용섭 4(225), 유정일 2(61), 윤석찬 2(167)
- ▶ 29기 김강식 2(271), 김태영 4(82), 박성훈 2(179), 박태웅 2(158), 이상일 2(214), 임성호 2(190), 현대식 2(176), 황재식 2(8)
- ▶ 30기 김광석 4(54), 김홍민 4(25), 김호성 2(70), 남진오 2(81), 이병길 2(45), 이용학 22, 이진 2(175), 임성달 2(145), 주경호 2(140), 홍성범 2(63), 함민호 2(126)
- ▶ 31기 권동호 4(112), 김영태 2(207), 김태희 2(35), 김희엽 2(252), 엄항수 2(162), 이재춘 2(236), 이흔복 2(74), 최대집 2(72), 전경민 2(59)
- ▶ 32기 권관덕 4(366), 김화용 2(139), 사인우 2(161), 송진수 3(113), 이태현 2(50), 주정용 2(10)
- ▶ 33기 권해욱 4(72), 김남식 2(189), 김성근 4(196), 김용원 100(130), 김현구 4(444), 남석진 2(163), 노일 3(239), 신성규 2(9), 안경일 2(260), 안준영 6(197), 이정표 6(146), 조용화 2(43), 조재봉 2(136), 홍종원 1(55)
- ▶ 34기 강동구 41(43), 김기수 2(206), 김민우 4(36), 김윤성 2(71), 김홍식 6(513), 이무이 2(430), 임창훈 2(106), 정웅민 3(232), 정창근 2(132), 정춘황 2(82), 조수창 2(207), 홍영기 2(51)
- ▶ 35기 김경철 2(35), 김수열 2(95), 박병준 6(386), 박상우 1(93), 박상천 2(54), 박시근 2(209), 송명성 4(112), 유희승 4(6), 이문희 2(175), 이호순 6(88), 은명훈 4(16), 임창규 2(133), 장춘삼 2(170), 전성광 2(64), 정병삼 3(177), 정영석 2(131), 정호준 4(146), 하중수 2(51), 한종훈 4(419)

- ▶ 36기 김도희 4(106), 김동혁 2(115), 김재훈 2(19), 김현 2(154), 박광석 2(4), 양현승 2(240), 이광희 2(176), 이규호 1(140), 임종수 2(96), 장세호 2(227), 정우철 2(162), 조동권 2(243), 진연수 2(187)
- ▶ 37기 강성봉 2(193), 김양홍 6(315), 김총기 4(199), 김홍년 2(258), 노진철 2(172), 문장권 2(46), 송석봉 4(203), 송용섭 4(337), 임태환 2(16), 옥원호 2(158), 이관모 2(164), 이원형 4(327), 임원철 2(179), 정우진 2(96), 정태욱 4(166), 최정호 1(64), 최하용 3(132), 함성규 2(129)
- ▶ 38기 모을하 2(257), 문정민 2(142), 문현성 2(255), 서성걸 2(99), 이경식 2(203), 위재익 4(125), 정한욱 2(234), 함기훈 2(110)
- ▶ 39기 권웅 2(70), 김의진 2(151), 김인경 2(109), 김지훈 2(137), 박철균 2(145), 송창현 4(163), 심용운 2(114), 양운차 2(92), 이대화 2(237), 이웅렬 2(133), 장동준 2(109), 정대겸 2(52), 최현철 2(298)
- ▶ 40기 구자윤 4(222), 김백민 2(224), 김영우 6(322), 김우형 4(58), 김종욱 2(65), 김형수 2(201), 남태근 2(60), 박상규 2(78), 박진하 2(117), 송석준 2(162), 유희선 2(108), 이호연 10(818), 이훈석 2(84), 최창국 2(120), 하성남 5(47)
- ▶ 41기 권영철 2(91), 김석진 10(368), 박한지 2(211), 방현욱 2(101), 손종득 2(119), 임성은 4(169), 전종상 10(327), 정기채 2(211), 최민규 4(161), 최지능 2(234), 홍학현 6(58)
- ▶ 42기 강구한 2(42), 강재석 2(129), 강정희 2(178), 공광석 2(84), 김동우 2(152), 김동진 2(121), 김용민 2(88), 박용준 6(106), 박효찬 2(178), 송병현 2(196), 윤광일 2(34), 윤희철 2(172), 이기욱 2(119), 이승운 2(178), 이용학 2(181), 정만기 2(171)
- ▶ 43기 강민식 4(290), 김용태 2(117), 김인중 2(262), 노창태 2(69), 박희영 2(85), 배동직 6(214), 백두산 4(286), 엄태섭 2(70), 이남익 3(88), 이도훈 2(153), 이용희 4(273), 이준맹 2(106), 이효선 2(108), 최진호 4(135), 허광석 2(117)
- ▶ 44기 김대은 2(129), 김승돈 4(46), 권용혁 4(80), 서동준 2(164), 안민환 2(42), 엄태천 2(117), 오승우 6(115), 이민재 2(156), 이영민 2(163), 이희성 4(189), 최재균 2(96), 황재혁 2(55)
- ▶ 45기 권기호 2(159), 김동호 2(167), 김성수 4(157), 박영일 2(162), 박지훈 2(110), 서석관 4(188), 신유철 2(152), 이인권 2(107), 이진희 4(178), 정재현 2(163), 정진우 2(164), 채희용 2(142), 최승수 2(165)
- ▶ 46기 강승웅 4(306), 권지민 2(38), 김대영 2(65), 김명철 2(151), 김정렬 2(151), 김정호 2(268), 김진용 2(183), 박수만 2(57), 백인정 2(151), 송원상 2(250), 오기리 2(149), 이상윤 2(151), 이신화 6(405), 이수원 2(154), 이진철 2(142), 정종택 6(455), 조광연 2(89), 조수빈 2(113), 차승우 2(113), 표상열 2(151), 한영민 2(151), 홍한표 2(142), 황순창 2(147)
- ▶ 59기 나다훈 2(2), 류제범 2(2), 이용훈 10(93), 함재규 2(2)
- ▶ 60기 서덕교 1(1), 유인서 1(1), 이정술 1(1), 전상훈 1(1)

▶ **지면제한으로 47~58기 기부현황을 기재 못한점 양해바라며**
www.kaayf.or.kr 또는 "충성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확인 가능 하니 참고바랍니다.

발전기금 참여안내

입금계좌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예금주)

• 농협 : 766-01-003094 • 국민은행 : 620-01-0861-994

• 우체국 : 900969-01-003463 • 대구은행 : 049-05-005898-6

※ 기부자 정보 수정 희망시에는 재단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054) 330-3180, 3182

동문들의 모교방문!
그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3사 9기 임관50주년
3사 30기 임관30주년
3사 38기 임관20주년

나재선 제이슨에프엔티(주) 대표는 이창호(19기) 재단이사장과의 인연을 통해 알게된 3사관학교가 지인 이창호 장군과 같은 우수인재를 많이 배출해달라며 1,000만원을 기부하였다.

박한상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회장은 경북 유일의 군사관학교인 육군3사관학교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더 큰 역할과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하였다.